

모래놀이치료에 나타난
경주 지진 피해지역 유아의 지진 이미지 연구*
A Study on the Images Used in Sandplay Therapy
by Children Who Experienced the Gyeongju Earthquake

박 종 미**

Park, Chong Me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themes and images in the sandplay scenes of children who experienced the 2016 Gyeongju earthquake.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children aged 3 to 6 years, and a total of four sessions of individual sandplay therapy was conducted once a week for 40 minutes per session. The children's stories were collected and their behaviors were categorized into themes and symbols commonly expressed. We identified a total of seven themes: attack, confusion, protection, precious things, mourning, emptiness, and energy to change. Individual sandplay therapy with the children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ir psychological recovery. We observed a decreasing tendency to use figures of soldiers, weapons, and religious spiritual images as they stabilized and their need for protection diminished, while images of construction, building facilities, and treasure increased over time.

Keywords : individual sandplay therapy, children who experienced earthquake, themes, images

* 논문은 2018학년도 남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 리본심리상담센터 놀이치료사 (pcmangela@hanmail.net)

I. 서론

지진은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3만 5,000명의 사망자를 내는 치명적인 자연재해이다. 1990년부터 2015년까지 26년간의 지진발생 현황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 규모 5.0 이상지진이 매년 평균 1,664회 발생하고 있다. 2016년 9월 12일 경상북도 경주에서 진도 5.8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였다. 이 지진은 한반도 관측 이래 최대 규모의 지진으로, 진원지인 경북 경주시를 비롯하여 대구, 부산, 울산을 포함한 경상도 일대 지역에 큰 진동을 주었고 거리가 먼 지역인 서울경기를 비롯한 제주도까지도 진동이 감지될 정도로 영향력이 큰 자연재해였다. 경주지진은 10월 중순까지 총 500여회의 여진이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국민안전처, 2017).

지진은 그 속성상 강진이 발생한 이후에도 여진이 지속되면서, 지진이라는 위험이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통제감이 어려워 질 수 있고(Ursano et al. 1994), 실질적인 위협과 주관적인 위협감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주혜선, 이나빈, 안현의, 2017) 신체적 문제와 더불어 신체화증상 등을 일으킨다(Cao et al., 2003; Chen et al., 2001; Kukihara et. at., 2014). 재난 피해지역 사람들은 우울, 동요, 악몽, 두려움, 의존, 퇴행 등의 급성 스트레스 반응을 보일 수 있다(김기태, 2006; 이운주, 2005; 최남희, 2006). 이러한 급성스트레스 반응이 1개월 이상 지속되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PT-SD)로 발전할 수 있다.

지진 재난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므로 지진과 관련된 재난 지역에서 심리적 손상이 추정되는 아동들에 대한 연구나 차후 효과적인 지원 방안 제고 등을 위한 자료의 축적 등 학술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2016년 경주 지진에서는 인명이나 건물에 상대적으로 큰 피해는 없었지만 여진이 계속되어 전 사회적 뿐만 아니라 미시적으로 가족 내 불안이 높아져서 재난에 대한 인식이 미숙한 유아들에게서도 재난 위협 자체나 부모들의 불안 반응에 따르는 2차적 위협으로 재난에 대한 심리적 반응들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유아들은 성인과는 달리 이러한 불안 증상을 지각하거나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또, 아동은 아직 성격형성이 발달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자연재난에 대해 성인들보다 더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 쉽고 성인과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다(김학분 외, 2014; Lacrox et al., 2007)고도 한다.

아동은 성인과 달리 사상, 감정, 감각, 관념, 기억이 분화되지 못한 상태이고, 인지능력이나 언어 발달의 미숙으로 자신의 심리적 경험을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비언어적인 상징체계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송영혜, 이은진, 2002). 따라서 인지와 언어발달이 다른 연령에 비해 미숙한 상태로 지진을 경험한 유아나 그런 재난 상태의 부모를 둔 유아들은 내재된 독특한 불안에 대해 어떤 특징적인 상징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그러므로 유아의 불안은 다른 연령의 불안과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될 필요가 있으며, 유아의 불안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부모나 유아와 가까운 성인들의 관심과 적절한 개입이 요구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재난지역에서의 이러한 아동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겠는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네팔 지진 관련 모래놀이 치료의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는 있으나(이세화, 2016), 아직까지 지진과 관련하여 유아에 대한 모래놀이치료를 통한 심리 표현에 대한 연구가 없어. 지진을 경험하면서 본능에 충실한 유아들이 어떻게 그들의 심리를 표현하고 있는지, 특징적인 반응이나 상징적 표현들은 무엇이며 상징으로 나타나는 그들의 심리적 주제는 무엇인지, 회기별 상징물(figure)들의 사용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이러한 유아들을 돕는 데에 유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모아보기 위하여 경주지진 피해를 겪은 유아들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의 하나로 사례연구로서 모래놀이치료를 실시하였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네팔지진 관련 모래놀이치료의 효과에 관한 이세화(2016)의 선행 연구에서는 집단모래놀이치료가 네팔 지진 생존 청소년의 심리적 건강을 증진시키고, 회복탄력성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는데, 이 연구에서 네팔 지진 생존 부모의 지진 사건에 대한 충격이 유의미하게 감소되었으며, 부모의 성인행동문제의 하위 영역 중에서 사고 문제를 제외한 불안·우울, 위축, 신체적 증상, 주의집중문제, 공격행동, 규칙위반, 내재화문제 및 외현화 문제, 그리고 성인행동문제 및 신체화 증상 모두 유의미하게 감소되었다. 아동의 경우에도 아동행동문제 모든 하위 영역 즉 불안·우울, 위축·우울, 신체적 증상, 사회적 미성숙, 사고 문제, 주의집중문제, 공격행동, 규칙위반, 내재화문제 및 외현화 문제에서 유의미한 개선이 있었다. 네팔 지진 생존 청소년들의 모래놀이치료에서 나타난 공통적인 주제로는 화서지몽, 백척간두, 신 그리고 나, 욕구, 관계, 경계와 구분, 마켓플레이스, 창조 등으로 표현하였다. 이와 비슷한 지진을 경험한 경주 유아들의 모래놀이치료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 보다는 더 본능에 충실한 유아들의 상징 사용에 차이가 있을 것과 다른 주제들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고 모래놀이치료에 있어서 그 주제와 상징은 어떠하였으며, 회기별 상징물(figure)들의 사용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모래놀이치료에 나타난 경주 지진 피해 지역 유아들의 주제는 어떠한가?
2. 모래놀이치료에 나타난 경주 지진 피해 지역 유아들의 상징사용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6년 경주지진이 발생한 후 2016년 11월 7일부터 12월 2일까지 경주 지역의 어린이집 시설기관 내에서 경주 지진을 겪은 만 3세부터 6세까지 14명의 유아대상으로 이루어진 개별모래놀이치료가 이루어졌다. 주 1회 총 4회기로 내담자(연구대상) 1명과 치료사(연구자) 1명의 일대일 개별 모래놀이치료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경주지역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전화, 우편물 등으로 대상자를 모집하였다. 그 중에서 모래놀이치료 프로그램에 협조를 보였던 K기관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어린이집 기관 내에서 개별모래놀이치료 공간을 만들어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실시하는 모래놀이치료는 Dora Kalf의 접근방식으로 자유롭고 보호된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여 비지시적, 비구조화의 접근으로 이루어졌다.

개별모래놀이치료에 참여하는 유아들의 부모와 어린이집 담당 교사에게 첫 회기에 구조화(기간, 공간), 연구 목적 및 내용, 과정을 사전교육 하였으며, 매 회기전 과정의 녹화 및 사진촬영 동의를 구하였다. 연구대상자의 14명에 대한 특징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대상자 특성

	연령	성별	대상	연령	성별
A	3	남	H	4	남
B	3	남	I	5	남
C	3	남	J	6	남
D	3	남	K	6	남
E	3	남	L	6	남
F	3	여	M	6	남
G	3	여	N	6	여

2. 연구절차

개별모래놀이치료 회기 시작 전 대상자들 중 자신들의 배경 정보와 지진 당시에 자신들이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어떤 상태였는지,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등에 대하여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유아는 없었다. 그런 상태에서 유아들을 대상으로 모래놀이치료에 대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회기 시작 후에는 모래놀이치료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과 모래장면에 대한 설명을 연구자가 기록하였으며 동시에 비디오 및 사진 촬영을 통해 유아의 행동과 그들의 모래장면을 수집하고 Jung의 분석심리학적 모래놀이치료에서 사용하는 상징 해석의 방법으로 해석하였다. 그리하여 모래놀이치료에 나타난 경주 지진 피해지역 유아들이 모래놀이치료에서 표현한 주제와 상징사용경향을 공통적으로 범주화하였다.

본 연구는 2016년 경주지진이 발생한 후 2016년 11월 7일부터 12월 2일까지 경주 지역의 어린이집 시설기관 내에서 경주 지진을 겪은 만 3세부터 6세까지 14명의 유아대상으로 2016년 11월 7일부터 12월 2일까지 경주 지역의 어린이집 시설기관 내에서 주 1회 총 4회기로 내담자(연구대상) 1명과 모래놀이치료사(연구자) 1명의 일대일 개별 모래놀이치료가 진행되었다. 그 중 3명은 3회기 1명은 2회기를 진행하여 총 51회기 진행되었다.

3. 분석 방법

연구대상 모래놀이치료의 전 회기 어록과 모래상자 사진을 수집하여 각 회기 진행 과정 중에서 사용한 상징물을 표 2의 장미경(2017a)의 모래놀이치료 상징물체계 분류에 따라 분석했다.

표 2. 모래놀이치료 상징물 분류체계 (23종)

종류	
사람	농부, 경찰관, 소방관, 의사 등
집안도구	가구, 가전도구, 주방도구 등
건축물	건물, 다리, 탑, 풍차, 물레방아, 유적, 울타리 등
음식물	
자동차(탈 것)	도로·해상·하늘의 교통수단, 소방차 같은 구조차, 경찰차, 건설장비차, 군용차 등
표지판	
건설장비	
군인	현대군인, 고대나 중세 과거 전사나 병사, 무장 군인,
무기	총, 대포, 탱크, 칼, 창 등 전쟁용품
동물	가축, 맹수, 초식동물, 상상의 동물
종교적 영적 피겨	예수, 부처, 마리아, 힌두교의 각종 신상, 이슬람교의 신상 등 각종 신상 및 탑, 촛대와 같은 종교용품, 산신령, 노현자 등

표 2. 모래놀이치료 상징물 분류체계 (23종)

(계속)

종류	
상상 및 원형적 존재	- 상상의 동물: 유니콘, 페가수스, 용등 - 상상의 인물: 마법사, 마술사, 요정, 마녀, 영웅, 악인 - 사람: 왕, 여왕, 왕자, 공주, 요정, 마녀, 마법사 - 형태: 사위 또는 사각형, 만다라, 정육면체, 구, 원, 정사각형, 삼각형, 피라미드, 태양, 달, 별 등
보물	황금, 보석, 비즈, 구슬, 크리스털, 보석 성분을 함유한 광물, 기타 중요한 것
트릭스터	해골, 묘비, 관, 뼈, 괴물 등
자연물	나무, 목재, 수풀, 꽃, 잡초, 과일, 식물, 조개, 산호 등
자연구조물	산, 바위, 돌, 폭포, 강, 시내, 연못, 샘, 우물, 화산 등
건축재료	타일, 스틱, 점토, 종이, 끈, 풀, 낚싯줄
불	양초, 라이터, 화롯불, 모닥불, 기타 불
공 류	공, 기구, 풍선
깃발	
여성용품	신데랄라 구두, 거울
기호품	술, 담배, 차
기타	눈사람, 그 외 구체적 모양이나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피겨

출처: 장미경(2017)분석심리학적 모래놀이치료. 학지사

III. 연구결과

본 연구 과정에서 시행된 모래놀이 치료 장면은 총 14명의 4회기 진행 중에서 첫 회기 12상자, 두 번째 회기 11상자, 세 번째와 네 번째 회기에서 각각 14상자, 도합 총 51 상자의 모래장면이었다. 주제별로 해당되는 상자 사진과 어록은 지면 관계로 이번 게재에서는 생략하기로 했다.

지진을 경험한 유아들은 연령이나 발달단계에 따라 다양한 모래장면을 표현하였다. 피겨들이 서로 공격하는 역할을 하게하며, 자주 새로운 인물로 변형시키고 새로운 역할을 떠맡기기도 하며, 피겨들을 가지고 작업 중인 모래상자에서 놀이하다가 모래상자 밖으로 옮겨놓기도 했다. 중요한 상징 요소를 파묻고, 파내고, 죽이고, 다시 살리고, 숨기고, 찾는 놀이가 반복되었다. 한 모래장면에서도 여러 주제가 포함된 장면이 표현되었으며, 똑같은 상징물을 사용하면서도 다른 의미로도 표현하였다. 모래놀이치료과정의 특성상 단계들은 불연

속적이며 발달의 다른 수준에서 상징적인 형태로 반복적으로 교차되어 나타나는 특성을 가진다(이부연·장미경, 2015)는 연구와 일치하는 모습을 보였다.

1. 모래놀이치료에 나타난 주제

본 연구의 개별모래놀이치료 회기 진행에서 수집된 영상과 모래사진 등을 활용하여 대상자의 모래장면에 나타난 주제들을 체크하여 범주화하였다. 개별모래놀이치료에서 경주 지진을 경험한 유아들은 공통적으로 공격성, 혼란, 보호, 공허, 애도, 소중한 물건, 변화하려는 에너지 등 7가지 주제로 표현되었다.

2. 모래놀이치료에 나타난 상징사용

연구 대상자들이 가장 선호한 상징물들은 전체 51개의 모래상자 중에서 동물 45상자(88.23%), 자동차(탈 것) 41상자(80.39%), 사람 30상자(58.32%), 건축물 24상자(47.05%), 보물 22상자(43.13%), 집안도구 19상자(37.25%), 군인과 무기 18상자(35.29%), 상상 및 원형적 존재 17상자(33.33%), 자연물과 자연구조물 16상자(31.37%), 종교적 영적 피겨 15상자(29.4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첫 회기와 마지막 회기에 나타난 상징물의 변화를 살펴보면 동물, 자동차(탈 것), 사람, 상상 및 원형적 존재, 자연물 등은 비슷하게 나왔으며 군인, 무기, 자연구조물, 종교적 영적 피겨 등은 첫 회기보다 마지막 회기에서 다소 줄어들었고, 건축물, 보물, 건설장비, 등에서는 첫 회기보다 마지막회기에서 다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모래놀이치료 과정 중에 군인, 무기, 종교적 영적 피겨사용이 줄고 보물과 건축물, 건설장비가 증가했다. 특별히 첫 회기에 전혀 등장하지 않았던 건설장비들이 5개의 모래상자로 마지막 회기에 나타났다. 건설장비는 일반적으로 비행장의 활주로, 유도로, 일반 도로, 설비 시설 등의 유지 보수 및 건설 공사용으로 설계된 장비를 말한다. 대지를 단단하고 안전하고 이동하기 편리하도록 공사를 하는 장면들이 등장하였다. 연구대상 유아들은 초기 모래놀이에서는 손으로 모래를 만지고 다독이고 단단하게 만들려고 시도하였던 모습에서 마지막 회기에는 더 역동적으로 건설 장비를 동원하고 이용하여 모래를 읊기고 다지면서 무엇인가를 만들려는 모습들이 관찰되었다.

표 3. 첫 회기와 마지막 회기 상징물 사용경향(N=상자수)

	첫 회기 피겨사용		마지막 회기 피겨사용	
	N	%(51상자)	N	%(51상자)
사람	6	11.76	6	11.76
집안도구	3	5.88	5	9.80
건축물	3	5.88	6	11.76
음식물	1	1.96	2	3.92
자동차 (탈 것)	9	17.64	10	19.60
표지판	1	1.96	2	3.92
건설장비	0	0	5	9.80
군인	6	11.76	2	3.92
무기	6	11.76	2	3.92
동물	10	19.60	11	21.56
종교적 영적 피겨	4	7.84	1	1.96
상상 및 원형적 존재	4	7.84	5	9.80
보물	2	3.92	7	13.72
트릭스터	1	1.96	1	1.96
자연물	3	5.88	4	7.84
자연구조물	2	3.92	3	5.88
건축재료	0	0	1	1.96
불	0	0	0	0
공 류	0	0	0	0
깃발	0	0	0	0
여성용품	0	1.63	1	1.96
기호품	0	0	0	0
기타	0	0	0	0

IV. 논 의

연구대상자들이 모래놀이치료에서 가장 선호한 상징들은 동물, 자동차, 사람, 건축물, 보물, 집안도구, 군인과 무기, 상상 및 원형적 존재, 자연물과 자연구조물, 종교적 영적 피겨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첫 회기와 마지막 회기에 나타난 상징물의 변화는 동물, 자동차(탈 것), 사람, 상상 및 원형적 존재, 자연물 등은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군인, 무기, 자 연구조물, 종교적 영적피겨 등은 첫 회기보다 마지막 회기에서 다소 줄어들었고, 건축물, 보물, 건설장비 등에서는 첫 회기보다 마지막회기에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유아기의 무의식세계의 본능적인 힘을 기초로 의식세계에서 그의 에너지를 활용하여 움직임과 변화를 경험함으로써 자아를 구축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유아들은 그들의 모래창조에 만족하며 매우 열성적이었다. 유아들의 불안으로부터 ‘보호’ 관련 상징은 주로 모래상자 안에 화가 난 캐릭터를 통해 나타났다고 할 수 있겠다.

언어적으로 그리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대상자들에 비해 유아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들을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모래놀이 상자는 좀 더 유아들의 내면을 표현하게 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게 했다. 모래는 사람을 움직이고 창조하라고 초대한다는 주장을 증명하는 듯 했다. 모래놀이상자에서는 무의식으로 향하는 문은 열려 있고 연구 참여 유아들과 연구자는 함께 정신의 놀이터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 곳에서 놀다보면 상징적인 표현과 강력한 감정들이 솟아오르며 촉각, 시각, 청각 그리고 후각의 감각들이 막 깨어나며 놀이하는 과정에서 연구 참여유아들의 움직임에 따라 형태를 만들며 촉각적인 감각을 알아차린다고 하는데, 모래를 만지며 “아이스크림처럼 부드러워요.” “떡 만들 때 가루 같아요.”, “시원해요.” 등의 말을 하며 모래놀이에 몰입하였다. 눈은 손과 함께 움직였다. 손이 탐험하듯이 파고, 두드리고, 따라가고, 쓰다듬고, 손가락그림을 그리고, 쿡쿡 찌러보고, 다듬질하고, 팍 잡고, 툭툭 치고, 뿌려 보기도 했다. 연구대상 유아들은 모래놀이 하는 과정에서 몸은 집중해 구부리고 가볍게 무겁게 빠르게 세계 천천히 하면서 주저하거나 반복하거나 효과적으로 결정적으로 하는데 몸이 참여했다.

때때로 우리는 대지에서 순간적으로 무엇을 보게 되며 새로운 것을 느끼게 되는데, 강력한 선이나 색, 짙어 트는 생명이 자라는 움직임을 보는 순간 신성함이 생겨나고 믿음을 가지게 되기도 한다. 대지는 초월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인간의 삶을 존중하는 힘을 지녔음을 의미한다(Lopez, 1989). 이런 이유로 삶의 기반인 대지가 흔들린 지진은 엄청난 재난이다. 연구자는 물리적 대지와 영적인 대지를 이야기하는 원형적 모티브를 중심으로 연구대상 유아들의 모래놀이 여정에 함께 참여했다.

유아들은 대지의 여신을 불러오기 위해, 도움을 청하기 위해 손으로 모래를 사용하는 듯 했다. 연구대상 유아들의 표현과 이야기는 모래놀이가 제공해주는 것을 확장시켜주는 깊은 통찰력을 주는 듯 했다. 연구대상 유아들이 모래를 만지고 사용하면서 에너지들이 실제적인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마지막 모래상자에서는 대지를 손으로 다지는 것이 아닌 더욱 강력한 건설 장비를 동원하는 장면들이 등장했다. 연구대상 유아들의 치유를 향한, 내면의 여정의 길을 건설하는 장면들은 매우 인상적이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여 졌다.

유아들은 피겨를 가지고 돌아오고 피겨를 꼭 움켜잡고 또는 피겨를 놓고 모래상자 주변을 돌고 눈높이 정도로 내려가거나 위에서 새가 내려다보듯이 내려다보는 움직임들도 있었다. 그 뿐만 아니라 유아들은 자신의 몸의 움직임에 따라 청소기를 들고 “위~잉” 소리를 내기도 하며, 고래를 들고 “고애”, 사람을 “사암”이라고 하는 등 유아적인 언어들도 많이 사용했다. 재빨리 숨을 들이 마시거나 한숨을 쉬거나 감탄하거나 속삭이며 치료사에게 이야기하거나 중얼중얼 이야기하거나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등도 관찰 되었다. 그런 모습에서 연구자는 연구 참여 유아들의 몸의 움직임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감정들을 느끼게 되었다.

연구자는 연구대상 유아들의 모래그림들을 심리적 고통의 표현으로 그리고 이후의 치유와 발달의 과정으로 보았다. 또한 그것들을 내적, 외적 세계의 변화를 이끄는 내적 상징과정의 반영으로서, 정신적 에너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리고 연구대상 유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과거의 기억과 구성, 인식하거나 경험하고 있는 현재, 미래의 상상, 그리고 이러한 세속적 차원의 무의식적 요소들 또한 의식과 무의식을 연결하는 이미지로, 모래놀이는 신성한 놀이로 심리치료에 흥미로운 접근 방식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7가지 모래놀이 주제

1) 공격성

모래놀이치료 장면에서 공룡이나 괴물이 서로 공격하는 장면이 나타났다. 이는 공격성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들이 보여 주는 공룡, 뱀, 맹수, 괴물 등의 침입으로 나타나는 모래놀이치료 과정은 감당하기 어렵고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의 감정을 일으키는 지진이라는 자극을 의식적, 의도적으로 조절하기 위한 아이들의 두뇌의 무의식의 작업이라 할 수 있겠다. 지진과 같은 자연 재난, 학대, 가정폭력, 심한 스트레스, 분노 등의 감정은 어린 유아나 아동뿐 아니라 청소년, 성인들도 공룡, 뱀, 맹수 등의 공격으로 상징화 하는 경향이 있다(장미경, 2017b).

공룡은 과거를 나타내는 것으로 아동의 과거 역사를 나타낼 수도 있다. 아동은 놀이 속에서 과거에 일어난 상황을 되풀이한다. 공룡은 매우 강력해 보인다. 공룡은 약탈자이고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존재이다. 또한 멸종했기 때문에 죽음을 나타낼 수 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아동은 장난감 공룡으로 이런 두려움을 놀이할 수 있다. 중요한 타인의 죽음을 다루는 아동은 공룡을 다른 놀잇감보다도 자주 선택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중요한 사람의 상실뿐 아니라 아동의 내적 평화를 상실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다(장미경외, 2009).

위협이 존재할 때 정신의 균형을 잡는 과정은 꿈이나 상징작업에 본능을 나타내는 동물 상징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융(Jung)은 뱀 꿈을 예로 들었다. 뱀은 본능세계의 표상이며 특히 심리적으로는 생명력 넘치는 과정이다. 뱀 꿈은 때로 의식적 마음의 태도와 본능 사이의 불일치를 나타내며 뱀은 갈등의 위협적 측면의 인격화다. 이는 우리가 “무엇인가 길쭉하고, 구불구불하며, 매끄럽게 기어가며, 송곳니를 가지고 있고, 날름거리고 돌로 갈라진 혀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위협을 알아차리려는 원형적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Jung, 1984/2007).

뱀은 인간에게 단지 무서운 것 이상이다. 그것은 매우 불쾌하다. 어떤 경우에도 그것은 정겨움이 없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뱀을 싫어한다. 뱀은 놀라움, 매료, 무서움, 공포를 느끼게 한다. 우리는 뱀을 예측 불가능하고, 빠르고, 조심성 많고, 공격할 준비가 되어있는 놈으로 본다.

뱀은 다양한 의미와 특징을 지니고 있다. 토착민들은 뱀이 모든 생명력이 지닌 에너지를 만들어 낸다고 보았다. 뱀은 또한 창조적 또는 파괴적인 양성적인 면을 지니고 있다. 고대 종교에서 뱀은 종종 신의 머리를 상징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 그 내면에 비밀스럽고, 불가시성(invisibility)을 가지고 있기에 뱀은 태고의 형태가 있기 이전의 상태(primordial formlessness)라 할 수 있다. 구불구불한 뱀의 등장은 여러 요소들이 이제 뒤섞이고 움직이기 시작함을 보여준다. 새로이 만들어지는 에너지와 함께 춤추기 위함을 암시한다. 이는 뱀이 지닌 힘이 좀 더 본능적인 삶을 연상시킨다.

2) 혼란

혼란스러움의 주제 모래상자 장면에서 나타난 사람, 동물, 집, 자동차, 가구 등의 여러 가지 잡다한 물건들이 쓰러트러지는(prone) 모습으로 표현되거나 쓰러진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이러한 장면들은 지진으로 인한 장면들이나 심각한 지진과 같은 자연 재난이 주는 심리적 피해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존의 개인적 상처(trauma)에 의해 그 심각성이 증가될 수 있다고 했는데(Rhi, 2012) 아동들이 기존에 어떤 상처가 있어 심리적 피해의 심각성이 있는지는 모호하다고 하겠으나 이런 장면을 보고 “누워있어”라고 표현을 했다.

혼란 혹은 혼돈은 모래상자 구성 내용에 심각한 수준의 단절과 무질서가 출현할 때 나타날 수 있다(Turner, 2009). 그러나 아동이 3세라면 혼돈스러운 모래놀이는 일반적일 수 있다. 혼돈은 창조에 선행하는 무형의 상태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보면 재생능력을 가지고 있다.

지진과 같은 자연 재난은 기존에 존재하는 개인적 상처에 대한 감정을 자극하여 개인의 심리적, 신체적 건강문제를 일으키는 경향이 있고, 심리적, 신체적 건강문제는 자연 재난과 같은 것에서 비롯된 외적인 스트레스와 내적 준비태세에 의해 발생한다(Rhi, 2012). 그러나

연구 대상자들이 유아인 이유로 내적 준비태세에 대한 개념의 적용이 용이하지는 않은 것 같다. 내적 준비태세라는 것은 개인적 외상으로 인해 생겨난 자아의식(ego-consciousness)의 약화, 자아의식의 연속성의 결여, 의식을 위협하는 무의식 내의 위협한 감정적 콤플렉스를 말한다.

지진피해에 대한 경험을 실제적인 지진 장면이라는 'big story' 보다는 일상생활의 어려움이라는 'small story'로 지진 경험을 모래상자에 표현하는 것이 더 건강한 것이라는 견해가 있는데, 잡다한 물건들이 쓰러뜨려진 장면들은 이를 시사하고 있다. 혼돈이 경계선을 무너뜨리고 분열 상태를 만드는 것처럼 혼돈은 자기 현시가 기대되는 뚜렷한 구분이 없는 통일된 상태에 재진입할 가능성을 열어주기도 한다. 정상적인 경계가 해체되면서 혼돈은 일상적인 시공을 벗어나 신성한 시간 내에서 일어난다. 혼돈은 혼돈으로 들어갈 때마다 과거가 사라진다는 미신적 감정 내에서 주기적인 것이라고도 한다. 혼돈의 과정은 시간을 재생성하는 새로운 시작인 것이다(Eliade, 1958). 지진 당시 장면이나 위협한 상황을 모래상자에 표현하는 것은 그들이 심리적 외상을 재 경험하는 것으로 외상회복의 신호라고 볼 수 있다.

3) 보호

위와 같은 혼란한 상황에 보호세력이 등장하는데 이는 신, 군인, 울타리, 나무, 탑 등으로 표현하였다. 지진과 같은 자연재난이 인간을 엄습할 때에 종교 또는 신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은 원형적이다. 위기의 때에 신의 이미지를 떠올리거나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정신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정신의 시도, 특히 집단무의식적인 자기원형(Self archetype)의 총합(constellation)이다(Jung, 1984/2007). 자연재난 그리고 그로 인해 총합된 무의식적 원형적 에너지는 신으로 경험되며 원형적 에너지가 자아기능을 범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인간은 신의 이미지를 필요로 한다. Jung은 무의식의 예기치 못한 위협한 범람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려는 오직 하나의 목적으로 실시되는 마술적 의례가 수없이 많다고 하였다(Jung, 1984/2007). 한국의 안동지역에서도 전염병이 돌거나 불운한 일이 생길 것 같은 흉조가 있으면 신의 강림의 징조로 보고 사람들은 신께 제사를 지내고 탈춤놀이를 하는 의례를 행했다고 한다.

이러한 신에 대한 의례는 신은 인간에게 생명과 풍요를 주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지진과 같은 자연재난을 주는 존재라는 인식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없는 신의 특성으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자아의식의 강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트라우마나 그것으로 생긴 개인적 콤플렉스는 원형적 피해가 자아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노력을 방해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인본주의적 관점에서의 원형과 신과의 관계는 세상에 많은 자생적 종교와 인간과의 관계를 놓고 볼 때 그렇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주를 창조한 신과 인간

과의 관계를 놓고 보면, 다시 말해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모자 애착 관계가 불안정하면 그 사람의 일생이 불안정할 수 있듯이 신과 인간관계에 있어서 원초적으로 신의 속성이 인성에 내재하지 않았다면 애당초 신을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창조신을 떠나 신을 잊고 살던 자연인으로서의 인간은 자신들이 상상하는 신의 노여움을 야기하지 않기 위한 많은 의례들을 만들어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원래의 창조신을 떠난 사람들은 본성에 내제된 신과의 원초적 관계에 기인하여 각각 자신들의 신을 만들어 왔을 수도, 또 각양 다른 의식들을 행해왔을 수 있다. 신을 잊어버린 원초적 본능에 충실한 본성은 융(Jung)의 소위 신으로 경험된다고 하는 무의식적 원형적 에너지가 자아기능을 범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신의 이미지를 필요로 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행위들을 일종의 입문식이라고도 하였다(이부영, 2012). 그러면서도 인간은 엄청난 자연재난을 가져다 준 그 자연이나 자신들이 만든 신을 찬양한다. 그러나 성경에서 소개되는 신과 인간과의 관계는 이와는 다른 양상이다. 성경에는 의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햇빛과 비를(축복)내리신다(마태복음 5:45)고 기록되어 있다. 세상에 진리를 따르지 않으며 부유하게 살다간 사람들을 향하여 ‘저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다’(마태복음6:2, 5, 16)고 기록되어 있으며 영원한 복락이 약속되지 않았음을 말하지만 영원한 보복성 형벌은 말하지 않고, 두 번째의 영원한 죽음을 말하고 있다(요한계시록 20:14). 그리고 성경은 신을 삶과 생명의 원천으로 소개하며 그 신은 사람이 죽는 것을 원치 않는 분으로 소개한다(에스겔 18:31, 33:11).

쓰나미 피해지역 사람들을 대상으로 모래놀이치료를 한 Kawai는 인간은 자연에 대해 매혹과 공포(fascination and fear)라는 두 가지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자연재난이 발생하면 인간은 그것을 가져온 자연의 힘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일본인들은 바닷가에 수 백 개의 신도 사원을 지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인간은 자연의 생산물을 인간에게 풍요롭게 제공하는 자연의 힘에 매료되며 그것에 감사하기 위해서도 종교사원을 짓는다. 본성에 신성을 가진 사람들의 자연스런, 당연히 기대되는 행동이 아닐 수 없다고 본다.

트라우마의 대표적 증상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신체화증상도 증상 그 자체는 직접적으로 관련 없어 보이지만 지진의 충격을 감당할 자아강도가 약할 때 신체가 충격을 흡수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이므로 모래놀이치료를 비롯한 심리치료 장면에서 직접적인 지진 표현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지진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즉 지진피해자들이 치료 장면에서 지진과 관련 없는 관계, 환경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지진과 관련이 없다거나 간접적인 영향만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4) 공허

어린 3세 유아들은 피겨들을 주로 상자 안과 밖을 이동하며 놀았다. 손으로 모래의 촉감을 느끼며 시간이 갈수록 점점 역동적인 손의 움직임을 표현했다.

외상경험은 기억에 남을 뿐만 아니라 신체, 정서 그리고 감각에 기억된다(Linda & Daniel, 2007). 특히 감각에 남겨진 경험은 언어로 설명되기 어려우면서도 강렬한 감정으로 경험 될 수 있다(Van der Kolk, 1996). 모래놀이치료는 비언어적이며 시각적인 경험을 통해 개인의 감각을 활성화하여 직접적인 표현을 하도록 도울 수 있다. 유아들은 모래놀이치료 초반 세션에 피겨에 관심은 갖지만 모래상자에 잘 놓지 않는 경향이 있다(Turner, 2009).고 했는데 짧은 회기였지만 그러한 과정을 관찰할 수 있었다.

땅이 흔들리는 곳에서 개구리들이 뛰쳐나왔는지 아이들이 그것을 보았는지는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희망을 전제로 한 공허함의 상징으로 개구리가 선택되어졌을 거란 공감이가 있었다. 개구리는 알에서 올챙이가 되고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는 변화처럼 상징적으로 개구리가 왕자나 공주로 변환되기도 한다. 이렇게 개구리가 변환을 예고하는 상징이라는 사실은 개구리가 봄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동물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과도 관계가 있다고도 한다. 개구리는 모든 것이 얼어붙고, 죽은듯한 겨울이 지나 만물이 싹들 때 땅에서 나와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동물이다. 공허함의 반작용으로 희망적 상징으로 개구리가 선택되었다고 한다면 너무 역설적일까?

5) 애도

연구 참여 유아들의 모래상자에서 피겨 위에 부드럽게 모래를 흩뿌리는 것을 자주 보게 되었다. 유아는 조용히 “하늘에서 비가 옵니다.” “물” “이렇게 되면 구름이지.”라고 중얼거렸다. 이것은 부드럽고 경건한 동작으로, 종교 의식적 중요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원형적 수준을 고려할 때 흩뿌림은 시작과 끝의 순환이다. 흩뿌리는 동작이 깊고 내적인 연결을 자극함에 따라 외부 세계와 상호작용을 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 시작하며 관계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모래놀이에서 유아들이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자연과 자신의 연계를 깨닫게 되는 것은 심오한 정신적 변형을 야기한다(Turner, 2009).

모래놀이에서 흩뿌리고 쏟아 붓고 떨어뜨리고 파묻는 것과 같은 행위는 모래놀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형태의 모습이다. 모래놀이에서 모래를 흩뿌리는 것은 비옥한 토지에 대한 신화적 행위에서 나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모래를 뿌리는 행위는 “씨앗을 뿌림”을 보여준다. 계절에 순응하여 다시 태어남을 반복하는 인간의 집단 무의식, 원시적, 태고 적 부터 이어지던 패턴이다. 뿐만 아니라 연구대상 유아들은 모래에 자신의 손바닥 자국을 남겼다 이는 새 삶이 등장할 것이라는 징조라 할 수 있겠다. Eliade는 종교와 인류학 연구를 통해 여러 문화권에 걸쳐 많은 농업적 의식 행위가 토지를 비옥하게 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위치나 문화에 상관없이 각각 토지의 비옥함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물 혹은 재를 뿌리는 의식을 수반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흠뿌림 행위는 희생적이다. 따라서 주어졌던 것을 다시 토지로 돌려보냄으로써 희생하는 숭배의 행위이다. 흠뿌리는 동작은 모든 존재에 필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몸짓이다(Eliade, 1958).

6) 소중한 물건

상자에 동전이나 구슬 등을 넣고 모래 속에 묻어두는 행위들이 있었는데, Treasure(보물)는 금색의 승화된 상징성을 의미한다. 세속적인 욕망에 의한 타락과 찬양을 상징한다고도 하는 군주의 초상이 그려진 주화로서의 금(gold)과는 대조적인 태양의 속성으로 여겨지기도 하는 보물들은 일반적으로 동굴에서 발견되는데 이 경우 동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한다. 하나는 어머니의 표상, 또 하나는 '찾기 힘든 보물(elusive treasure)'을 담고 있는 무의식이다. Jung은 영웅이 고통스러운 노력 끝에 얻게 되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내성과 퇴행이 자신을 속박하고 있었던 동굴 안에서 재탄생 하는 것이며, 영웅이 계속해서 어머니 원리에 속박되어 있는 한 자기 자신이 용이며, 영웅이 어머니로부터 벗어나 다시 태어난 경우 그는 용(이전의 자신의 모습)의 정복자가 된다고 하였다(Bradway, 1997). 이러한 모습을 Dora Kalff는 자기(Self)라 하였고, Vries는 연금술에서의 숨겨진 보물 탐색의 과업과 같은 것이라고 하였다(Vries, 1984).

상자는 다른 사람이 알고 있지 못하는 비밀을 나타내거나 숨기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또한 경계를 세우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고, 아동의 감정을 담아두기 위해서도 사용될 수도 있다. 또 아동의 갈등을 상징할 수 있다. 아동은 선물하기 위해 상자를 누군가에게 주는 상상놀이를 할 수 있다. 아동은 또한 자신을 상징하기 위해 상자를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값비싼 것들을 상자에 넣으면서 "여기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값진 것이 있어요."라고 말할 수 있다. 놀이의 맥락을 통해 상자나 그 안의 내용물이 아동에게 의미하는 것을 곧 알 수 있다. 그러나 내용물이 상징하는 것을 아동이 드러내지 않으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열지 않는 행동 자체를 통해 상자는 믿음을 상징할 수 있다. 첫 세션에 상자를 사용한다면 아동이 무엇인가 비밀스러운 의사소통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아직 아동이 치료자에게서 신뢰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치료자가 알아주기를 표현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러면서 아동이 현재 상황에 대해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다. 아동은 내용을 알고, 그 자신의 방법으로 비밀을 오픈할 수 있다. 그것은 아동에게 존중, 조절능력을 회복하게 해준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동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속도와 방법으로 아동의 문제를 표현할 수 있게 해주고,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매우 중요한 놀잇감이다(2017, 장미경a).

파묻고 발굴하는 행위는 아동 자신 속에 있는 보물을 발견하는 것일 수도 있다. 어린 아동일수록 모래 속에 묻어 놓은 것을 치료사에게 찾아내라고 요구하는 일이 흔히 있다. 5세 남아의 모래장면에서도 마지막 4회기에서 보물을 숨겨놓고 치료사에게 찾으라며 치료실을 떠났다.

무엇인가 묻혔을 때 아동은 무언가 소중한 것을 감추고 있거나 약한 것을 보호하고 있거나 혹은 썩어빠진 자라게 될 것을 심거나 기르고 있을 것일 수 있다. 묻는다는 것은 또한 견딜 수 없거나 혹은 무섭거나 섬뜩한 어떤 것을 감추는 것일 수도 있다. 무의식의 그림자 속에 잠복해 있는 어떤 특징은 자아에게 위협적인 것이다. 묻는다는 것은 어려움 또는 함정에 빠지거나 매장되거나 무기력한 것과 관련된 것일 수 있다.

파묻는다는 것은 아직 다뤄지지 않은 것을 통제하려는 시도일 수도 있다. 묻는다는 것은 사물을 시야에서 사라지게 하려는 것일 수 있다. 모래놀이의 한 동작으로서의 묻는 행위는 보이거나 인식하는 것이 두려운 것에 대해 의식을 행하는 것으로 최소한 부분으로는 의식적 자각 하에 이루어진다. 위에서 보여 준바와 같이 연구대상 유아들은 모래놀이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모래를 만지고 모래를 뿌리고 무언가를 파묻는 것은 분열을 향한 몸짓이라도 할 수 있겠다.

연구대상 유아들이 보물이라고 지칭한 피겨 중에 특별히 Crystal이 자주 등장하였다. Crystal(수정)은 어렵게 도달되는 보물, 즉 자기를 상징하며 연금술과정에서는 철학자의 돌에 해당된다. 연금술사들은 그 철학자의 돌이 몸체, 영혼, 정신으로 이루어진다고 하고, 그것이 살아있는 본질이라고 불렀다. 철학자의 돌 혹은 수정은 내면 혹은 보다 고매한 총체적 인간의 상징이다(Jung, 1977). Crystal(Bradway, 1997)은 전체성의 상징으로 지혜, 직관적 지식, 정신, 지성, 눈과 관련 있다. 크리스탈은 주술사들이 미래를 보는 도구이며 의식이 태어날 가능성을 보여준다. 여기서의 주술사는 치료사를 전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Crystal은 자신 속 처음부터 존재하던 지혜와 연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수정의 치유력은 다양한 수준에서 일어나며 충분히 자신의 역량을 확장할 수 있도록 도와 신비로움을 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빛을 투과시키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아름다운 Crystal을 보면서 소망을 염원하는 것 같았다.

7) 변화하려는 에너지

활동적이고 생명력이 넘치는 열정적이고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보여 졌다. 지진으로 인한 무질서의 무의식에서 벗어나 의식화된 자아를 위해 건설 차량들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흙을 퍼 나르며 공사를 시도했다. 경주 지진에서 무너진 건물들은 대부분 오래 전에 지어졌거나 벽돌로 지어진 것들이었다. 때문에 집이 무너지는 경험을 통해 안전하고 튼튼한 집을 갖고자 하는 희망을 표현했다고 본다. 회복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필요성을 표현

한 것으로 해석된다.

V. 결 론

본 연구는 경주 지진을 경험한 유아들에게 모래놀이치료를 실시하여 그들의 모래놀이치료에 나타난 지진이미지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모래놀이치료회기에서 지진을 경험한 유아들의 언어적·비언어적 표현, 모래놀이장면, 상징 등을 토대로 모래놀이치료 장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주제와 상징들을 범주화하였다.

모래놀이는 과거 주제에서와 현재의 다양한 경험의 상호작용에 따른 감정의 범위를 통해 아동이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유아들이 창조적인 표현활동과 상징적인 표현이 탐험놀이를 위한 탄력성 요인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자연재난의 대표적인 지진 환경에서의 유아들에 대한 심리 상황을 다루고 있으며 모래놀이치료에 나타난 놀이 주제와 지진 이미지를 범주화하였다. 유아는 지진의 경험을 언어로 직접 표현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외상 경험 유아들이 모래놀이치료를 통해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방식으로 외상경험을 표현함으로써 그 상처를 재 경험하고 스스로 치유해 나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정서적으로 중요한 유아기 시기에 지진 재난으로 인한 직간접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유아들에게 직접적인 심리적 치료접근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으며 유사한 환경에서의 모래놀이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의 방향과 방법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연구기간의 제약과 프로그램에 대한 단기간의 진행이라는 제한점이 있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연구기간을 좀 더 길게 설정하여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프로그램 효과가 유의하게 지속되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겠다.

둘째 사전에 부모면담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아의 개별적인 특성을 깊이 고려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지진 당시 유아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누구와 있었는지 등을 부모면담을 통해 사전에 알아야 할 필요성도 있겠다. 따라서 후속연구로는 사전 및 사후평가를 통한 치료적 효과검증 절차를 미리 설계하고 실행함으로써 임상현장과 연구영역의 연계성 확정을 고려할 수 있겠다.

셋째 국내에서 지진을 경험한 유아대상으로 모래놀이 치료적 개입에 대한 연구가 없어서 유아들의 상징이 지진 자체에 대한 불안에서 정작 기인한 것인지 부모의 불안 반응에서 기인한 것인지 분명한 경계가 확실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유아기시기의 지속적인 정서발달

은 중요하기 때문에 또, 지진 재난은 반복적이며 그 피해 또한 지속적일 수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 연구와 그에 따르는 결과를 토대로 부모 교육이나 관련 어린이들을 돌보는 분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조언해줘야 하는가를 탐색해 낼 필요가 있겠다.

참고문헌

- 김기태 (2006). 위기개입론: 일상생활의 위기와 극복방법(제3판). 파주: 대왕사.
- 김학분, 서완석, 공정식, 배대성 (2014). 한국판 임상가용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평가척도: 아동 및 청소년용 실시지침서. 맥스메디카.
- 송영혜, 이은진 (2000). 유아기 아동의 모래놀이치료 표현연구. 놀이치료연구, 4(2), 29-44.
- 이부영 (2012). 한국의 샤머니즘과 분석심리학: 고통과 치유의 상징을 찾아서. 한길사.
- 이부연, 장미경 (2015). 북한 이탈 남한청소년과 남한청소년의 모래놀이 치료에서의 표현 상 태비교. 상징과 모래놀이치료, 6(2), 31-45.
- 이세화 (2016). 집단모래놀이치료가 네팔 지진 생존 청소년의 심리적 건강과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효과. 남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윤주 (2005). 심리학에서의 재난위기관리 연구. 한국위기관리논집, 1(1), pp. 85-99.
- 장미경, 김연진, 윤혜경 (2009). 놀이치료. 서울: 창지사.
- 장미경 (2017a). 분석심리학적 모래놀이치료. 학지사.
- 장미경 (2017b). Archetypal symbolism in the recovery process from natural disaster: Sandplay therapy of earthquake adolescent survivors. 상징과 모래놀이치료, 8(2), 1-21.
- 주혜선, 이나빈, 안현의 (2017). 외상심각성과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에 미치는 영향에서 외상관련 역기능적 인지적 평가와 자기 낙인의 이중매개효과. 인지행동치료, 17(3), 341-364.
- 최남희 (2006). 재난 피해자 사후 지원: 재난 피해자의 사회복귀. 한국 위기관리논집, 2(2), 3-17
- De Vries, A. (1984). 상징과 이미지 사전(Dictionary of Symbols and Imagery)
- Bradway, K., & McCoard, B. (1997). *Sandplay-Silent workshop of the psyche*. London/New York: Routledge.
- Turner, B. A. (2009). 모래놀이치료 핸드북. 서울: 학지사.
- Cao, H., McFarlane, A., & Klimidis, S. (2003). Prevalence of psychological support, and the tsunami. *International Review of Psychiatry*, 18, 213-216.
- Chen, C. C., Yeh, T. L., Yang, Y. K., Chen, S. J., Lee, I. H., Fu, L. S. & Chen, L. Y. (2001). Psychiatric morbidity and post-traumatic symptoms among survivors in the early stage following

- the 1999 earthquake in Taiwan. *Psychiatry research*, 105(1), 13-22.
- Eliade, M. (1958). *Pattern in comparative religions*. Lincoln: Sheed and Ward.
- Jung, C. G. (1984). *Menschenbild and Gottesbild*. Grundwerk C. G. Jung Bd. 4. Walter-Verlag AG. (Trans. into Korean in 2007 by Jung Institute of Korea)
- Jung, C. G. (1977). *Psychology and alchemy*. (R. F. C. Hull, Tran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53)
- Kukihara, H., Yamawaki, N., Uchiyama, K., Arai S., & Horikawa, E. (2014). Trauma, depression, and resilience of earthquake/tsunami/nuclear disaster survivors of Hirono, Fukushima, Japan. *Psychiatry and Clinical Neurosciences*, 68, 7.
- Lacroix, L., Rousseau, C., Gauthier, M. F., Singh, A., Giguere, N., & Lemzoudi, Y. (2007). Immigrant and refugee preschoolers sandplay representations of the tsunami. *The Arts in Psychotherapy*, 34, 99-113.
- Linda E. H. & Daniel, S. S. 모래상자기법 - 실제지침서 - (황명숙 역, 2007 서울: 학지사).
- Lopez-Pedraza, R. (1989). *Hermes and his children*. Switzerland: Daimon.
- Rhi, B-Y. (2012). *Korean shamanism and analytical psychology: Searching for sufferings and healing*. Seoul: Hangil-sa.
- Ursano, R. J., McCaughey, B. G., & Fullerton, C. S. (1994). Individual and community responses to trauma and disaster: The structure of human chao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van der Kolk, B. A., McFarlane, A. C., & van der Hart, O. A. (1996). General approach to treatment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B. A van der Kolk, A. C. McFarlane, L. Weisaet (Eds.), *Traumatic stress The effects of overwhelming experience on mind, body, and society*. New York. Guilford Press.
- 국민안전처. “지진 안내.”<http://www.mpss.go.kr>

투고일 : 2018. 10. 25
수정일 : 2018. 12. 15
게재확정일 : 2018. 12. 27